

#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의 권위 대상에 대한 인지\*

## Social Authority as Perceived by Children and Adolescents Removed from Illegally Built Shacks

이 순 형\*\*

Yi, Soon Hyung

###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perception of social authority by children and adolescents removed from illegally built shacks. 181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illegally built shacks and 200 comparative respondents of middle socioeconomic status were investigated. Perception of the social authority figures was classified by 5 categories (self, family member, neighbor, teacher and peer, social authority, collective member) in terms of contactable possibility and psychological distance. The data were analyzed by f-test.

The results showed that (1) compared with their middle class peers (M group)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illegally built shacks (S group) perceived social authority figures positively, while they perceived their own family members less favorably. (2) The S group regarded their teachers as more valuable and able than M group. (3) The S group perceived social authority figures, i. e., statemen, polices, national assembly members, public servants and enterprisers, less favorably than their family members. (4) There were main effects of the age and sex variables of respondents. (5)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age, sex and SES variables and was also interation effect between age, sex and task variables in cognition for the social authority figures. There was also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age and SES variables in perception for the personal traits of the social authority figures.

### I. 서 론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 관해서 인지하는 양상은 사회 인지 주제로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사였다. 아동이 사물에 관해 인지할 때에 사물의 속성에 따라서 분류하고, 공통된 속

성을 기준으로 범주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인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제로 범주화할 것임을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실제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자기의 인지 체계 안에 가지고 있는 도식, 즉 전형성에 의해서 범주화한다는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회인물에 관해서 인지하

---

\* 본 연구는 1991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포철학술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 조교수

는 것은 사물에 대한 인지와 달리, 그 조직 사회의 구조와 위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특정 인물에 관해 인상을 형성하므로 아동, 청소년의 사회 적응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인지대상 인물이 부모라면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에 관해 인상을 형성하고 자기의 인지 범주 속에 분류해 놓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인지한 결과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인지는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과 사회 적응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인지는 정신적 조작에 의한 인지작용이면서도 그가 체험한 생활 경험의 유무와 내용에 따라서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아동이 성장한 가정환경이나 정정이 속해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 즉 사회계층과 문화적 환경 등의 미시적 또는 거시적 환경의 경험 내용에 따라서 사회 인지의 내용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 인물에 대한 인지 중에서 특히 사회 적응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사회적으로 핵심적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인지이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합법적 권력, 즉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상 인물에 관해 인지하는 것은 사회조직의 구조와 위계의 공정성에 대한 인지를 의미함과 동시에 인지주체인 응답자가 권위 대상의 인성, 능력 등을 인지할 뿐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의 호혜성 등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권위 대상에 대한 인지는 단지 사회인물에 대한 지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한 사람들의 성취 원인에 대한 귀인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인지 주체의 사회관과 더불어 그의 포부 수준까지도 가능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상대적으로 빈곤 상태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경험해 온 빈곤층 아동과 청소년들이 부모의 능력과

지위에 대해서 중류층 또래들보다 덜 만족해 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더군다나, 행정당국의 강제 철거라는 조치를 경험한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를 비롯한 사회적 권위 대상에 관한 인지는 중류층 또래의 인지에 비해서 비판적일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권위 대상에 관한 인지 연구가 이론적 측면에서나 실제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이유는 이론적으로나 개념적으로 권위를 공식화 하는 것의 곤란함으로 인한 것(Allen and Porter, 1983)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권위 개념에 대한 청소년의 합의 뿐 아니라, 부모(김경희, 1990; Tisak, 1986)를 제외하고는 권위 대상에 대한 인지가 연구되지 못한 것이 우리 연구의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해서, 본 연구는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권위 대상에 대한 인지를 조사해 보려고 한다. 사회적 권위 대상을 응답자를 중심으로 접촉 가능성을 가늠하여 원거리 범주와 근거리 범주로 나누어, 아동과 청소년들이 어느 범주의 대상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는지를 살펴 보려고 한다. 이러한 범주별 대상에 대한 인지의 호의성에 철거촌과 중류층 아동과 청소년이 다른지를 밝혀 보려고 한다. 또한 사회 권위 대상에 대한 인지에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 변수의 영향을 알아 보려고 한다.

## II. 선행연구의 고찰

권위 대상에 대한 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권위의 개념, 권위 대상에 대한 지각과 그에 영향을 주는 생활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본다.

### 1. 권위의 개념과 권위 대상

인간관계를 논할 때에 기본이 되는 개념은 영향인데 이는 심리적 힘이다(Cartwright, 1979). 영향을 추정하는 일반적 기초는 대인간 상호관계에서 타인의 행동을 의도한대로 변화시키는 것(Katz and Kahn, 1966)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영향이 반드시 직접적일 필요는 없다. 그 영향이 본인이 시도한 대로 정확하게 나타나거나,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영향과 관련된 개념으로는 권력, 통제와 권위가 있다. 권력이란 영향과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권력이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실제로 나타난다기 보다는 잠재적으로 행사한다는 점에서 영향과 다르다. 권력이 순종을 강요하는 방법에 의해서 감추어진 채 영향을 주는 잠재된 힘을 말한다.

권위란 무엇인가? 영향이 일반적 의미를 뜻한다면, 권위는 보다 더 제한된 의미를 지니는 말이다. 영향이 사람을 심리적으로든 행동적으로든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한다면, 통제는 영향을 미치려고 한 사람의 의도에 부합되는 성공적인 영향만을 뜻한다. 권위란 합법적 권력을 말한다. 합법적 권력인 권위의 근원은 직업지위에서 연유된다(Katz and Kahn, 1966).

권위의 소재지는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다. 조직이 민주적 구조인 경우에는 합법적 권력은 구성원에게 있으며 구성원 대다수의 소망을 실행하는 것이 실행지침이 된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조직에서는, 합법 뿐 아니라 실행상의 권력도 사다리구조의 윗부분을 점유한 사람들만의 것이 되거나 나머지 구성원들은 그들의 통제를 받게 된다.

사회적으로 합법적 권력을 부여받은 권위대상은 사회조직체의 역할지위와 관련되어 규정된다. 일반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 담당자와 기업 운영자가 사회적 권위대상으로 간주되고, 그리고 아동과 관련해서는 학교 교육담당자, 부모와

친척 어른들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권위대상은 공식적 권위 대상과 비공식적 권위 대상으로 나뉜다(Mechanic, 1983). 공식적 권위 대상으로는 교사, 기업가, 행정관리, 공무원, 경찰, 정치가,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가족구성원, 친척, 이웃 사람들과 또래 등은 비공식적 범주에 속하는 대상이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권위 대상을 접촉 가능성과 빈도를 중심으로 근거리 대상과 원거리 대상으로 나누어 살펴 보면 가족내 부모, 형제는 가장 인접해 있는 대상이며, 그 다음으로는 친척 이웃 어른들이다. 학교교사도 공식적 권위 대상으로는 근거리 대상에 속한다.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권위대상에 대해서 어떤 권력을 소유한 인물로 인지하는 지가 의문시된다. 즉 어린 아동은 권력의 원천을 자원의 배분(Pfeffer, 1982)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타인을 자기의 의사대로 밀어부칠 수 있는 강제적 권력의 원천으로 인지하는지 아니면 참조적 권력의 원천으로 인지하는지, 보상적 권력의 원천으로 귀인하는지(French and Raven, 1959), 권력의 양상에 따라서 달리 귀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French와 Raven이 말한 다섯 가지 권력의 양상 중 보상적 권력과 강제적 권력은 자원과 관련된 권력이며, 참조적 권력은 영향을 받는 대상인 목표인물의 동기와 관련된 것이며 실행적 권력은 영향을 주려는 사람의 인성 특성에 관한 것이며 합법적 권력은 목적 대상에 관한 것(Patchen, 1974, p. 196)이다.

## 2. 권위대상에 대한 지각

사회적 지위를 점유함에 따라서 합법적 권위를 지닌 사람에 대한 지각은 사물에 대한 지각과 마찬가지로 인지적 범주화 이론을 따른다. 사물인지에 있어서의 범주화이론은 유기체가 사물을 지각

할 때에 자극 대상의 인지적 유사성(Rosch, 1978)에 따라서 범주화하고 각각의 범주는 공통된 지각 속성에 입각해서 전형성을 형성하고 있다. 유기체가 새로운 자극 대상을 지각할 때에 그 전형성을 토대로 범주화를 하게 된다(Foti, Fraser and Lord, 1982; Lord, Foti, Phillips, 1982)는 것이다.

전형성은 특정한 범주의 표상적 구성요소(획일성)로서 추상적 표상으로 작용한다(Rosch, 1978). 전형성에 의해서 과제에 대한 수행이 촉진될 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효율적으로 부호화하고 저장하는 등 대인지각에 있어서의 정보처리 과정이 효율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인지각의 인지적 범주화이론은 행정 부나 기업 등 모든 사회조직의 지도자의 지각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지도자행동을 기술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개인이 동일한 상관 밑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행동으로 묘사되는 사항에 유사성이 나타나는 것(Rush and Russell, 1988)도 인지적 범주화 과정의 효과를 밝혀 준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아동이 사회적으로 권위를 가진 대상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도 예외 없이 범주화 이론이 적용될 것임을 시사받는다. 권위대상의 전형성을 아동은 인지하고 그 전형성의 표준에 입각해서 부모를 비롯한 친척 어른들과 학교 교사, 행정관리, 기업가 등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합법적 권력인 권위를 부여받은 인물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고 판단하리라고 생각된다.

### 3. 권위대상 인지와 생활경험

아동이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지각하고 판단할 때에 그가 겪은 생활 경험의 유무와 내용이 관련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환경과 유기체의 심리를 연구한 학자들은 감각기관을 통한

인간의 사물 지각현상에 환경이 영향을 미치며 개념화와 같은 인지구조에도 영향을 준다(Hoffman, 1981; Wagner, 1982)고 한다. 사물에 대한 인지양상에도 그러하다면, 사회적 권위대상에 대한 지각에는 그 대상과의 직접적 경험은 말할 나위 없으며 간접적 경험의 내용에 따라서도 권위에 대한 지각이 다를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간접적 경험은 아동과 청소년이 속해 있는 조직의 권위 체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조직의 권위 체계는 합리적 권위체계와 전통적 합리체계로 나뉜다(Weber, 1947). 합리적 권위 체계에서는 규범적인 규칙의 체계가 합법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합법성에 입각해서 권위 대상이 조직 구성원에게 지시하고 명령할 권한이 인정된다. 그러나, 전통적 권위 체계에서는 전통에 입각해서 권위 대상이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용인된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이 소속된 사회가 어떤 권위 체계인가에 따라서 그들이 그 체계 내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바가 다를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가정이나 학교 조직의 체계적 특성에 따른 간접적 경험도 그러한 예이다.

또한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부모나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곧 그 대상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민주적 태도를 지닌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아동에게 권위주의적 부모의 자녀와 달리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다른 내용으로 개념화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직접적 상호작용은 말할 것도 없으며, 간접적 상호작용도 대상인물의 권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민주적 사회에서 성장한 아동의 경우와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성장한 아동의 권위에 대한 개념이 다를 것임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가정의 환경인 사회계층의 문화적 특성이 아동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빈곤층

가정에서는 중류층 가정보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더 권위주의적으로 대한다(Gecas, 1979)는 것 만으로도 빈곤층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이 권위대상에 대해서 중류층 가정의 또래들과 달리 인지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중류층 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경찰이나 공무원 등과의 관계는 빈곤층 가정생활에서 이들과 경험하는 관계의 내용과 상당히 다를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데, 특히 무허가 주택의 강제 철거라는 정부정책의 시행으로 행정 당국과의 갈등을 경험한 아동들은 사회적 권위대

상에 대해서 중류층 또래들과는 다르게 인지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빈곤층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도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사회적 권위대상의 범주의 거리별로 볼 때,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은 근거리 범주와 원거리 범주의 대상에 대해서 어느 쪽에 더 호의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성격

변 수	집 단	빈 도(%)	변 수	집 단	빈 도(%)
계층	하류	134(34.6)	형제수	1명	16( 4.1)
	중류	248(64.1)		2명	192(49.6)
	무응답	5( 1.3)		3명	117(30.2)
학년	국민학교	204(52.7)		4명	26( 6.7)
	중학교	178(46.0)		5명	10( 2.6)
	무응답 5(1.3)			6명	5( 1.3)
연령	10세-12세	200(51.7)		7명	1( 0.3)
	13세-16세	165(42.6)	무응답	20( 5.2)	
	무응답	22( 5.7)	출생순위	첫째	148(38.2)
성별	남	185(47.8)		둘째	136(35.1)
	여	196(50.6)		셋째	66(17.1)
	무응답	6( 1.6)		넷째	13( 3.4)
가족수	핵가족	328(84.7)		다섯째	6( 1.6)
	직계가족	59(15.2)	여섯째	2( 0.5)	
	무응답	9( 2.3)	무응답	16( 4.1)	
거주지			구로	20( 5.2)	
			봉천	69(17.8)	
			난곡	14( 3.6)	
			도봉	31( 8.0)	
			반포	248(64.1)	
			무응답	5( 1.3)	

적으로 인지하는가?

**연구문제 2.** 사회적 권위대상의 범주에 관한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들의 호의성 인지는 중류층 또래에 비해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사회적 권위대상에 관한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들의 호의성 인지는 연령과 성별 변수에 따라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가? 또한 권위대상에 대한 호의성 인지에 연령과 성별 변수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의 권위대상의 인성 특성에 대한 인지는 어떠한가? 또한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의 권위대상의 인성 특성 인지는 중류층 또래의 것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가?

### Ⅲ.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선정

철거촌의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불량주택 재개발 지역으로 공포한, 일명 ‘달동네’로 알려져 있는 서울의 구로동, 봉천동, 난곡동, 도봉동의 철거촌을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비교집단인 중류층으로는 반포 지역을 택하였다. 각 지역의 국민학교 4·5·6학년 학생과 중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

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실시 결과 회수된 404부의 질문지 중 부실기재된 질문지 17부를 제외한 387부의 질문지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성격은 다음 표 1과 같다.

####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조사는 아동과 청소년이 가정, 학교와 이웃에서 접하는 가족과 이웃 등의 가까운 사람과 사회적 권위 대상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인지대상은 ‘나’를 기점으로 해서 자기와의 접촉 빈도를 가늠하여 근거리에 위치한 권위 대상으로는 부모와 형제를 포함한 가족, 친척, 이웃, 친구와 교사를 설정했으며, 그리고 자기와의 접촉 빈도가 비교적 적고 심리적 거리가 멀 것으로 예상되는 원거리 권위대상으로서 경찰, 기업가, 국회의원, 공무원과 정치가를 선정하였는 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조사 도구로는 인지대상별로 각각 9가지의 인성특성(정직, 친절, 공정, 책임감, 근면함, 너그러움, 믿음직함, 무서움, 나를 위해 봉사함)에 대해 지각하도록 요구하는 과제가 사용되었다. 응답자는 16 인지대상을 9가지 인성특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에서 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5

근거리				원거리	
범주 1	범주 2	범주 3	범주 4	범주 5	범주 6
나	가족	학교	이웃	사회적 권위대상	집단
나	어머니	친구	이웃집 아저씨	경찰	한국인
	아버지	교사	이웃집 아주머니	국회의원	우리사회
	형제			정치가	
	친척			공무원	
				기업가	

점 척도로 지각하도록 하였으므로 개별 응답자의 점수폭은 16점부터 144점이다.

수합된 자료는 통계적으로 차이 검증을 위해서 F 검증과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수합된 자료를 통계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아동과 청소년의 권위 대상 인지의 빈도 분포를 통해서 연구문제 1을 살펴보고, 변수간 차이

검증 결과를 통해서 연구문제 2, 3을 밝혀 보려 한다. 연구문제 4는 권위대상의 인성 특성에 관한 인지점수의 인지특성별, 또한 응답집단 간 인지점수의 차이 검증을 통해서 살펴보려 한다. 분석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1. 권위 대상 범주별 아동과 청소년의 인지(연구문제 1)

대상 아동과 청소년이 사회적 권위대상의 범주별로 인지한 호의성 정도는 다음과 같다.

〈표 2〉 권위 대상별 인지의 빈도분포

접촉거리	범주	인물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점수범위	사례수	
	1	나	36.86(8.33)	11.00	50.00	(10-50)	357	
근거리	2	아버지	39.92(5.01)	9.00	45.00	(9-45)	365	
		어머니	39.78(4.50)	13.00	45.00	(9-45)	344	
		형제	33.42(7.54)	11.00	45.00	(9-45)	358	
		친척	33.84(6.84)	9.00	45.00	(9-45)	362	
	3	친구	31.79(6.54)	9.00	45.00	(9-45)	350	
		교사	34.26(8.05)	9.00	45.00	(9-45)	364	
4	이웃아저씨	30.20(7.62)	9.00	45.00	(9-45)	357		
	이웃아주머니	32.19(7.38)	9.00	45.00	(9-45)	314		
원거리	5	경찰	33.08(8.28)	9.00	45.00	(9-45)	363	
		국회의원	21.38(8.52)	9.00	45.00	(9-45)	362	
		정치가	22.32(9.07)	9.00	45.00	(9-45)	363	
		공무원	28.53(8.13)	9.00	45.00	(9-45)	363	
		기업가	25.11(8.34)	9.00	45.00	(9-45)	352	
	6	한국인	27.79(5.32)	9.00	41.00	(9-45)	342	
		우리사회	32.27(10.41)	12.00	60.00	(12-60)	351	
	전체			514.94(71.82)	307.00	700.00	(157-740)	188

사회인물에 관한 인지 점수 중 국회의원(중앙값 27)과 정치가(중앙값 27), 기업가(중앙값 27), 우리 사회(중앙값 36)에 대한 인지 평균 점수는 중앙

값 이하였다. 반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인지의 평균 점수는 다른 영역의 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권위대상이 속해 있는 각 범주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이러한 경향성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인지 점수 평균을 보면 범주 1, 2, 3의 평균값은 중앙값보다 높은 반면에 범주 4, 5의 평균은 중앙값 보다 낮다. 이러한 통계값을 통해서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형제를 비롯한 가족과 친척, 친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반면에, 사회적 권위 인물이나 우리 사회에 대해서는 덜 호의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연하면 아동과 청소년들은 혈연 인물이나 학교 등 주변 환경 속에서 자주 접촉하는 근거리 인물에 대해서는 그들의 능력이나 인성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데 비해서 공식적 권위를 지닌 지위에 있는 원거리 인물대상에 대해서는 덜 호의적으로 지각한다.

## 2.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아동, 청소년의 권위 대상 인지(연구문제 2, 3)

본 연구의 연구문제 2는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의 권위대상 인지가 비교 집단인 중류계층 또래와 유의하게 다른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3은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응답자의 권위대상 인지가 다른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의 권위인지 점수를 권위대상 범주별로 중류층 또래의 인지 점수와 차이 검증을 하고, 두 집단의 학년, 성별에 따라서도 권위 대상 인물의 소속 범주별로 인지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 1) 소속계층에 따른 권위 대상 인지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의 권위대상 인지가 인물의 소속 범주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범주 2에 속하는 대상인물에 대한 인지에 의미있는 차이( $F=19.46, p<.0001$ )를 보였다. 범주 2는 가족구성원을 나타낸다.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들

이 중류층 또래들에 비해서 그들의 가족에 관해서 덜 긍정적으로 인지한다. 즉, 이들은 중류층의 또래들보다 근거리에 있는 권위대상, 즉 가족원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의 호의성 정도가 낮다. 그러나, 원거리에 있는 공식적 권위 대상에 대한 인지에는 차이가 없다. 구체적으로 개별 권위대상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인지를 살펴 보았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응답집단 간에 아버지( $F=26.85, p<.0001$ ), 어머니( $F=5.48, p<.05$ ), 형제( $F=13.66, p<.001$ ), 친척( $F=24.12, p<.0001$ ), 학교교사( $F=6.83, p<.01$ )와 우리사회( $F=8.82, p<.01$ )에 대한 인지가 두 응답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인지 전체점수, 한국인, 친구, 이웃아저씨, 이웃아주머니, 경찰, 국회의원, 정치가, 공무원, 기업가, 나에 대한 인지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인 권위 인물 중 아버지, 어머니, 형제와 친척에 대한 인지에 대해서는 철거촌의 아동과 청소년이 중류층 아동과 청소년보다 덜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반면, 학교 교사와 우리사회에 대해서는 이들이 중류층의 또래들 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들이 그들의 가족과 친척 인물의 권위와 능력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권위가 그가 소지한 자원의 종류나 양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설명될 수 있다.

### 2) 학년에 따른 권위인물 인지

연구 대상의 학년별로 권위 대상에 대해서 인지하는 바를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6개의 범주에서 학년별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권위 대상에 대해서 국민학생이 중학생 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 사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고 능력이 증가한다고 해석되기 보다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판적 사고가



증가한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은 Piaget에 의하면 형식적 조작

기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의 인지 능력과 사고의 특성상 현실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 3〉 학년에 따른 권위 인물에 대한 인지

인지대상	학 년	빈 도	평균(표준편차)	F 값
전체	국민학생	80	542.04(71.79)	22.05****
	중학생	108	494.87(65.23)	
범주 1	국민학생	192	38.93( 8.36)	27.38****
	중학생	165	34.46( 7.66)	
범주 2	국민학생	152	155.07(17.57)	8.25***
	중학생	152	149.11(18.60)	
범주 3	국민학생	175	70.02(13.07)	13.22***
	중학생	165	65.17(11.18)	
범주 4	국민학생	153	67.10(16.17)	4.26*
	중학생	149	63.64(12.66)	
범주 5	국민학생	148	144.99(31.08)	50.71****
	중학생	158	121.49(26.58)	
범주 6	국민학생	164	63.18(14.00)	34.05****
	중학생	156	54.68(11.90)	

\* p<.05    \*\* p<.01    \*\*\* p<.001    \*\*\*\* p<.0001

학년에 따라 사회인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개별 인지인물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나(F=27.38, p<.0001)뿐 아니라 아버지(F=5.63, p<.05), 어머니(F=9.93, p<.01), 친척(F=6.14, p<.05), 학교교사(F=14.64, p<.001)와 이웃아저씨(F=9.09, p<.05)에 대한 인지점수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뿐 아니라, 원거리 범주에 속하는 범주 5, 6의 대상 인물 중, 구체적으로 경찰(F=71.89, p<.0001), 정치가(F=42.86, p<.0001), 국회의원(F=41.47, p<.0001), 공무원(F=17.21, p<.0001), 기업가(F=14.7605, p<.0001), 한국인(F=20.66, p<.0001), 우리사회(F=27.05, p<.0001)에 대한 인지에도 학년별

차이를 나타냈다. 모든 권위인물에 대한 인지에서 중학생보다 국민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권위대상에 대한 비판적 인지가 증가함을 뜻하는 것이다. 반면, 친구, 형제와 이웃아주머니에 대한 인지는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3) 성별에 따른 사회인지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권위대상에 대한 인지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범주 1, 즉 자기에 대한 인지에만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F=5.00, p<.05)를 나타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긍정적으로 자기에 관해서 지각한

다는 사실이다. 이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남아가 더 존중된다는 사실과 부합된다. 이 결과를 통해서 청소년기에 이미 여성의 자존감이 낮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 이외에 여러 인물에 관해서 성별에 따라 인지의 차이를 보였다. 친구( $F=7.59, p<.01$ )에 대한 인지에는 남아보다 여아가 더 긍정적인 반면, 친척( $F=4.82, p<.05$ ), 이웃아저씨( $F=4.37, p<.05$ ), 경찰( $F=4.64, p<.05$ ), 정치가( $F=4.90, p<.05$ )에 대해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친구에게 더 밀착된 상태로 감정을 지각함을 의미하지만, 그의 다른 권위대상에 대해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덜 호의적으로 지각함을 뜻한다.

그외에 전체점수, 한국인, 아버지, 어머니, 형제, 이웃아주머니, 국회의원, 교사, 공무원, 기업가와 우리사회에 대한 인지는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 4) 응답자의 소속 계층, 성별, 학년 변수간 상호작용

다음 아동과 청소년의 권위 대상 인지에 있어서의 변수간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 ① 학년과 성별 변수간 상호작용

응답자의 학년과 성별 변수가 권위대상에 대한 인지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범주 2( $F=3.97, p<.05$ ), 범주 3( $F=4.96, p<.05$ )과 범주 4( $F=7.59, p<.01$ )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범주 2는 가족원이며 범주 3은 학교 또래와 교사이고, 범주 4는 이웃사람에 대한 인지를 말하는데 이들은 모두 근거리 범주에 속하는 권위인물이다. 국민학생들이 중학생보다 가족, 교사와 이웃사람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는데 이러한 양상은 여학생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도 가족, 교사와 이웃사람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 된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중학생이 이웃사람에 대해서 다소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는데 반해서 여학생의 경우에는 중학생보다는 오히려 국민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여학생들이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러 타인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라는 사실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러한 양상은 개별 인물에 대한 인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아버지( $F=4.38, p<.05$ ), 이웃아주머니( $F=5.24, p<.05$ ), 교사( $F=10.84, p<.001$ )에 대한 인지점수에 있어서 학년과 성별 변수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남학생은 국민학생이나 중학생에 관계없이 아버지, 이웃아주머니, 학교교사에 대해서 유사하게 지각하지만, 여학생은 국민학교 때에는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다가, 중학생이 되면 남학생보다도 덜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 ② 성별과 계층 변수간 상호작용

성별과 계층 변수간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범주 2( $F=4.59, p<.05$ ), 범주 3( $F=5.25, p<.05$ )에서 두 변수간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철거촌 남학생들은 그의 가족과 학교교사에 대해서 중류층 또래나 철거촌 여학생보다 훨씬 덜 호의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별 인물에 관한 인지를 살펴보면, 어머니에 대한 인지에서 성별과 계층 변수가 상호작용 효과( $F=5.94, p<.05$ )를 나타냈다. 중류층 남아와 두 집단의 여아는 어머니에 대해서 유사하게 긍정적으로 지각하는데 비해서, 철거촌 남아는 어머니에 대해서 덜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학년과 계층 변수간 상호작용

다음 계층 변수가 학년 변수와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 범주 5, 즉 사회권위대상에 대한 인지에서 두 변수간 상호작용( $F=7.26, p<.01$ )이 나타났다. 범주 5에 속하는 인물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F=8.01, p<.01$ ), 정치가( $F=6.53, p<.05$ )와 기업가( $F=6.71, p<.01$ )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인지에도 계층과 학년별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국회의원, 정치가와 기업가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인지양상은 모두 동일한 경향성을 나타냈다. 즉, 국회의원, 정치가와 기업가에 대해서 철거촌의 국민학생들이 중류층 또래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한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면 인지양상이 뒤바뀌는데, 철거촌 중학생들이 중류층 학생보다 더 비판적으로 권위대상을 인지한다.

④ 학년, 성별과 계층 변수간 상호작용

아동과 청소년이 권위대상에 대한 인지에 학년, 성별과 계층 변수간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범주 5 즉, 사회권위 대상에 대해서는 세 변수간 상호작용효과( $F=7.18, p<.01$ )가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권위 대상에 대한 인지가 비교 집단인 중류층보다 다소 더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철거촌 국민학생의 지각은 비교 집단에 비해서 가장 긍정적인데 비해서 중학생의 지각은 비교집단보다 훨씬 덜 긍정적인 것으로 보아 철거촌 중학교 여학생이 사회적 권위 대상에 대하여 가장 비판적임을 알 수 있다.

계층, 성별과 학년 변수가 나타내는 상호작용은 범주 6, 즉 한국인과 우리 사회에 대한 인지에서도 동일하다. 남아인 경우에는 중류층 중학생이 가장 덜 긍정적으로 권위대상을 인지하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철거촌 국민학교 여학생이 가장 긍정적이나 중학생은 가장 비판적임을 알려준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 권위 인물에 대한 인지에는 계층, 성별과 학년 변수가 주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두 변수간, 세 변수간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3.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권위대상의 인성 특성 인지

본 연구의 연구문제 4는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의 권위대상의 인성특성별 인지를 통제집단과 비교하는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계층과 학년, 성별에 따라 그들이 권위대상의 9개 인성특성(정직, 친절, 공정, 책임감, 근면함, 너그러움, 믿음직함, 무서움과 나를 위한 봉사)에 대하여 중류층 또래들과 다르게 인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1) 사회계층에 따른 인지대상의 인성특성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계층에 따라서 그들은 대상의 인성특성에 대해 달리 인지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사회인지대상에 대해서 ‘무섭다’는 응답( $F=16.03, p<.0001$ )과 ‘나를 위해준다’는 응답( $F=4.24, p<.05$ )이 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철거촌의 아동과 청소년보다는 중류층의 아동과 청소년이 대상을 더 무섭다고 인지하였으며, 또한 그들이 자신을 위해준다고 인지하였다. 한편 너그러움, 정직, 친절, 공정, 믿음직함, 책임감과 부지런함에 대한 지각에는 계층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이 대상 인물의 지위에서 연유된 권위의 힘과 실제 역할의 기능에 대해서 더욱 인지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다음 계층과 학년 변수가 아동과 청소년의 권위 대상의 인지에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한 결과, 대상인물의 너그러움( $F=8.03, p<.01$ )과 정직( $F=4.71, p<.05$ )과 같은 인성특성에 대한 인지가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었다. 철거촌 국민학생들이 권위대상을 중류층 또래보다 더 너그럽게 정직한 사람으로 인지하지만, 철거촌 중학생들은 중류층 또래보다 훨씬 덜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 2) 학년에 따른 권위 대상의 인성특성 인지

권위대상의 인성특성에 대한 인지가 학년에 따라서 다른지를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대상 인물의 9가지 인성특성 인지에서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보다 국민학생이 대상의 무서움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지한 반면 그외의 모든 영역 즉, 너그러움, 정직, 친절, 공정, 믿음직함, 책임감, 근면함과 나를 위해준의 영역에서는 국민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였다.

학년과 성별변수가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인지에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한 결과, 대상인물이 근면함에 대한 인지에서 상호작용 효과( $F=4.03, p(<.05)$ )를 나타내었다.

## 3) 성별에 따른 권위 대상의 인성특성 인지

성별에 따라 권위 대상의 인성특성에 대한 인지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 대상이 '믿음직'이며 '나를 위해준다'는 응답에는 성차가 나타났다. 여아보다는 남아가 권위 대상을 더 믿음직스러우며 자신을 위해준다고 인지하였다. 그리고 그외의 인성특성, 즉 너그러움, 정직, 친절, 공정, 무서움, 책임감, 근면함의 영역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성별과 계층 변수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촉 가능성으로 보나 심리적 거리로 볼 때 부모나 교사 등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권위인물과, 인지 주체인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원거리에 있으나 사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즉 사회적 권위인물에 대한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의 인지를 조사했다. 본 연구는 불량 주택 지역의 지정과 강제 철

거라는 행정조치의 시행과정에서의 경험으로 인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이 권위 대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지할 것임을 가정했다. 이러한 가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 387명을 대상으로 권위 대상인물에 관한 그들의 응답을 통제집단인 중류층 아동과 청소년의 응답과 비교 조사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로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들은 중류층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근거리 권위대상에 대해서 원거리 대상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지와 비교해 볼 때, 아동과 청소년이 인지한 사회적 권위대상 중에 정치가, 국회의원, 경찰, 공무원, 기업가에 대해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이 덜 호의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류계층의 또래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바로서, 우리 사회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권위대상에 대한 신뢰가 가족원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비해서 전반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둘째로 사회적 권위대상에 대해서 철거촌 아동은 중류층 또래에 비해서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가 가졌던 바와는 상충된다. 철거라는 행정조치가 철거촌 아동의 사회인지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예상되었으나, 이 예상과는 달리 중류층 또래들 보다도 오히려 전반적으로 사회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학생인 청소년기에 이르면, 이러한 경향은 바뀐다. 철거촌 청소년들은 비교집단 또래들보다 권위대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인지한다. 이 사실은 중학교에 입학하는 연령이 권위대상 인지가 비판적으로 변화되는 시기라는 점을 의미해 준다. 철거촌 청소년의 비판적 인지의 전개를 더 심도있게 살피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이후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위대상에 대한 인지를 조

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은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 중류층 또래에 비해서 덜 호의적으로 인지한다. 원거리 범주에 속하는 사회적 권위 인물에 대한 인지에는 차이가 없으면서 근거리 범주에 속하는 부모, 형제와 친척인물들에 관해서 통제집단보다 덜 호의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중류층 또래 집단에 비해서 자신의 가족과 친척 인물에 대해서 덜 유능하고 성격적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는 권위가 대상인물이 소유한 자원의 종류와 양에 관련된다는 French와 Raven의 고전 연구 모델(1959)에 입각해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들은 학교 교사에 대해서 중류층 또래들보다 더 호의적으로 지각한다. 중류층 아동과 청소년보다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은 교사를 더욱 유능하고 공정할 뿐 아니라, 너그럽고 성실하며 책임을 다하는 성격의 소유자로 지각하고 있다. 말하자면, 학교교사는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에게 그들의 부모나, 가족과 주변사람들 보다 더 성취한 사람으로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교사가 동일시 모델이 될 가능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빈곤층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학교교사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그런데 국민학교 아동들의 권위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설명은 극한적 빈곤환경이 아동들에게 사회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자신이나 가족원들이 성취하지 못한 곳에 오른 사람들, 성공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점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소유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지위가 부여한 강제적 권력의 막강함을 크게 인지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부모와 친척에 대한 인지가 중류층 또래들 보다 훨씬 낮는데 비해서 학교교사에

대한 인지가 비교집단보다 높다는 사실이 실제 지위가 주는 힘에 대한 지각에 의한 이 설명을 지지해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철거촌 아동은 자신의 포부 수준을 낮추고, 사회적 권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체념적 성격을 형성할 수 있다.

셋째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권위대상에 대한 인지 양상은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 다르다. 다섯 범주별 사회적 권위대상의 경우에, 중학교 학생들이 국민학생들보다 권위대상에 대한 인지가 더 비판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는 중학생들이 권위대상에 대해서 더 비판적으로 인지함을 의미한다. 형제나 친구와 같은 수평적 관계에 대한 인지에는 연령 차이가 없는 대신에 나머지 수직적 관계에 속하는 거의 모든 대상에 대해서 국민학생보다 중학생들이 더 비판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권위대상에 대한 인지 양상은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다. 친구, 친척, 이웃아저씨 뿐 아니라 경찰과 정치가 등에 대해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비판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 이웃아주머니와 교사에 관한 인지에서 연령과 성별 변수간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학교 시기에는 여아가 남아보다 이 인물들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나, 중학교 시기에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비판적으로 인지한다. 이 사실은 대인 인지의 비판성 획득에 철거촌 여아들이 더 민감함을 의미한다.

또한 국회의원, 기업가와 정치가 등 사회적으로 핵심적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인물에 관한 인지에서 계층과 연령변수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은 흥미로운 일이다. 국민학교시기에는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의 권위대상에 관한 인지가 가장 호의적이다가 중학생의 경우에 가장 비판적이다.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의 권위대상 인지 양상에서 중학생

이 되는 시기가 비판적 인지능력이 형성되는 민감기로 생각되며, 이는 Piaget의 형식적 조작 능력의 단계적 특성과 일치된다.

그뿐 아니라, 사회적 권위 대상에 대한 인지에 계층, 성별과 학년 변수간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합법적 권위를 소지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들이 중류층 또래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지한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는 다르다. 철거촌 국민학교 여아는 다른 어느 집단 보다도 사회적 권위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지하나, 철거촌 여자 중학생은 가장 비판적으로 인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중학교 시기가 권위대상에 대한 비판적 인지가 시작되는 시기임을 나타내며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여학생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넷째로 권위대상의 9가지 인성특성에 대한 인지를 분석해 본 결과, '무서움'과 '나를 위해줌' 등의 인성특성에 대해서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들이 중류층 또래들 보다 더 크게 지각하고 있다. 두 가지 인성 특성이 상충된 듯 하지만, 정직, 근면, 공정, 친절 등의 인성 특성에는 차이가 없으면서 이 두 가지 특성에 차이를 보이는데, 이 특성들이 모두 지위에 부여된 세력을 실제로 지각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권위인물의 '정직'과 '너그러움'에 대해서 계층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철거촌 국민학생들이 권위대상을 중류층 또래보다 더 정직하고 너그럽게 간주하지만, 철거촌 중학생들은 중류층 또래들 보다 권위대상의 정직과 너그러움에 대해서 더 비판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본 연구가 사회적 권위 인물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인지의 호의성을 밝혀 보고자 한 것은 독창적 시도로서, 대략적이거나 권위대상에 대한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의 인지양상을 밝혀 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서구 사회와 비

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권위가 중시되는 문화권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권위를 규정하고 있는지와 권위 형성의 실제, 즉 청소년들이 권위를 인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자원이나 정보의 양과 같은 변수와 권위 인지의 기제를 밝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참 고 문 헌

- 김경희 (1990). 아동의 부모권위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 Damon의 권위개념단계에 따른 분석, 아동학회지, 11권, 1호 15-28.
- Allen, R. W., & Porter, L. W. (1983). Organizational influence process. Glenview, IL: Scott, Foresman.
- Cartwright, D. (1959). Contemporary social psychology in historical perspectiv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2, 82-93.
- Foti, R. S., Fraser, S. L., & Lord, R. G. (1982). Effects of leadership labels and prototypes on perceptions of political leader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7, 326-333.
- French, J. R. P., & Raven, B. (1959). The bases of social power. In D. Cartwright (Ed.), Studies in Social Power. Ann Arbo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Gecas, V. (1979).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on socialization. In W. R. Burr, R. Hill, F. I. Nye and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Free Press.
- Katz, D., & Kahn, R. L. (1966).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ations. New York: Wiley.

- Hoffman, M. L. (1981) Perspectives on the difference between understanding people and understanding things: The role of affect. In J. H. Flavell and R. Ross (Eds.),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Frontiers and Possible Futu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rd, R. G., Foti, R. S., & Phillips, J. S. (1982). A theory of leadership categorization. In J. G. Hunt, V. Sekaran & C. Schriesheim (Eds.), Leadership: Beyond Establishment Views.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Mechanic, D. (1983). Sources of power of lower participants in complex organizations. In R. W. Allen and L. W. Porter (Eds.), Organizational Influence Process. Glenview, IL: Scott, Foreman.
- Patchen, M. (1974). The locus and basis of influence on organizational decis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II, 195-221.
- Pfeffer, J. (1982). Power and resource allocation in organizations. In B. M. Staw & G. R. Salancik (Eds.), New Directions in Organizational Behavior. Malabar, FL: Robert E. Krieger.
- Rosch, E. (1978). Principles of categorization. In E. Rosch & B. B. Lloyd (Eds.), Cognition and Categorization. Hillsdale, NJ: Erlbaum.
- Rush, M. C., & Russell, E. A. (1988). Leader prototypes and prototype-contingent consensus in leader behavior descrip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4, 88-104.
- Tisak, M. S. (1986). Children'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Child Development, 57, 166-176.
- Wagner, D. A. (1982). Ontology in the study of culture and cognition. In D. A. Wagner & H. W. Stevenson (Eds.), Cultural perspectives on child development, 105-123.